



2012 런던 올림픽 마케팅 열전



2012년 7월 28일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 될 런던 올림픽 게임이 드디어 막을 올린다. 올림픽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런던은 막바지 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선수들은 다가올 올림픽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것은 선수들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다가오는 올림픽을 위해 선수들만큼이나 열심히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 전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이벤트를 겨냥한 스폰서들의 캠페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Coca-Cola 'Move to the beat' 캠페인

코카콜라는 전 세계의 십대들을 메인 타겟으로 한 'Move to the beat'이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광고 모델로 발탁된 8명의 올림픽 팀 선수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도 하고 퀴즈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경품도 제공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팬들은 미국의 올림픽 팀을 응원하는 사진과 메시지 등을 사이트에 올릴 수 있으며, 이는 타임스퀘어의 코카콜라 전광판에 노출되어질 것이라고 한다.

GE 'Healthy Share' 캠페인

GE는 페이스북 상에 'Healthy Share'라는 앱을 만들었다. 소비자들은 이곳을 통해 건강음식 레시피, 건강운동 팁 등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올림픽 선수들의 하루 운동스케줄 혹은 식습관을 알려준 후 소비자들이 올림픽 선수들이 제공한 방법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 등을 일주일 별로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TV광고도 '건강'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GE는 최근 B-to-B 광고기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GE는 첨단 의료 영상장비들과 같은 많은 B-to-B 제품들의 광고를 통해 GE가 건강하고 활기찬 세상을 지속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Samsung 'Everyone's Olympic Games' 캠페인

이번 올림픽 캠페인 테마를 'Everyone's Olympic Games'으로 정한 삼성은 영국에서 펼쳐지는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를 후원하고 팬들이 성화 봉송 릴레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잘 알려진대로 이 행사에는 삼성전자

의 광고모델 이승기도 주자로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 주변과 런던 시내에 다양한 스마트기기 체험존을 설치하여 스마트기기 체험과 함께 제품 구매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유럽의 파워블로거들을 선발, 삼성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올림픽 현장경험을 릴레이로 전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U.S Olympic Genome Project'라고 하여 미국의 팬들을 올림픽 선수들과 연결시켜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McDonald's 'Champions of Plays' 캠페인

맥도날드는 'Champions of Plays'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맥도날드는 가족들에게 균형 잡힌 식습관과 함께 아이들에게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온라인을 통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을 런던으로 초대, 올림픽 경기에 참석하여 운동선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OMEGA 'Start Me Up' 광고

오메가는 '공식 시간 기록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글로벌 광고를 제작했다. 특히 롤링스톤의 'Start Me Up'을 배경음악

으로 한 이번 광고는 다수의 올림픽 게임 출전 선수가 출현, 선수들의 준비운동 모습부터 경기 시작 전 집중하고 있는 모습 등을 초침이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담아내고 있다.

Procter & Gamble 'Thank You Mom' 캠페인

P&G는 런던올림픽 게임에 맞춰 'Thank You Mom'이라는 글로벌 광고를 제작하였으며, P&G의 대표 브랜드들의 판매수익을 통해 500만 달러를 유소년들의 체육 프로그램 설립을 돕겠다고 하였다. P&G의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는 "모든 운동선수들의 뒤에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어머니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전하며 P&G는 'Thank You Mom' 프로그램을 통해 올림픽 선수의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을 응원한다고 한다. P&G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계 73개국에서 34개의 브랜드를 광고한다.

Visa 'Cheer' 캠페인

Visa는 70개국의 TV광고를 통해 'Cheer'라는 캠페인을 알리고 팬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응원 댓글 달기, 올림픽 선수와의 대화, 비디오 업로드를 하고 이를 공유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프로모션 기간 동안 달린 응원 댓글은 올림픽 기간 동안 집행될 광고에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한다. **KAA**

유재형 yoojh1999@kaa.or.kr

